

## 연구원 소식

### 2022년 회원의 날 안내

연구원이 문을 연지도 어느덧 16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에 걸쳐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개원 13주년 기념식 및 회원의 날 이후 멈췄던 개원 기념식이 코로나 광풍을 뚫고 3년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일수로 계산해보니 1092일 만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전 지구적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회원의 날 즈음에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길 비는 마음을 모아 준비중입니다. 우선 날짜와 장소를 알려드리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날짜 : 2022년 08월 27일(토) 15시 ~ 28일(일) 11시
- 장소 : 고창 베리팜 힐링파크(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610번지)
- 대상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회원 및 동반자

###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오는 6월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이 현장 인터뷰를 비롯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을기록화 사업 보고서에 삽입될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거나 자료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드립니다.

## ■ 역사 속의 오늘

### 돌베개 스러지다 - 1975. 8. 17

1975년 8월 17일 포천 약사봉에서 장준하는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민주주의 자체를 믹서로 갈아버리는 긴급조치라는 폭압 하에서 반격을 준비하던 '재야 대통령' 장준하는 경사 75도의 암벽을 장비도 없이 오르다가 '실족'하여 떨어져 죽는다. 귀 뒤에는 무언가 뽀족한 것으로 맞아서 함몰된 상처만 '우연히' 남긴 채.

오늘날 그는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좌파'로 불리우는 이들에 의해서 추앙을 받지만 기실 그는 열렬한 우파로 살았고 우파로 죽었다. 일본군에 학병으로 입대한 후 탈출하여 '야곱의 돌베개 베고 잠' 같은 고난을 무릅쓰고 광복군에 합류한 이후, 자신들을 포섭하려는 좌익 계열의 김원봉을 질타했으며, 치사하게 미인계를 쓰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장준하는 정말로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투철한 민족주의자로서 계급투쟁을 논하는 이들을 배격했고, 웬만한 허물은 동족으로서 함께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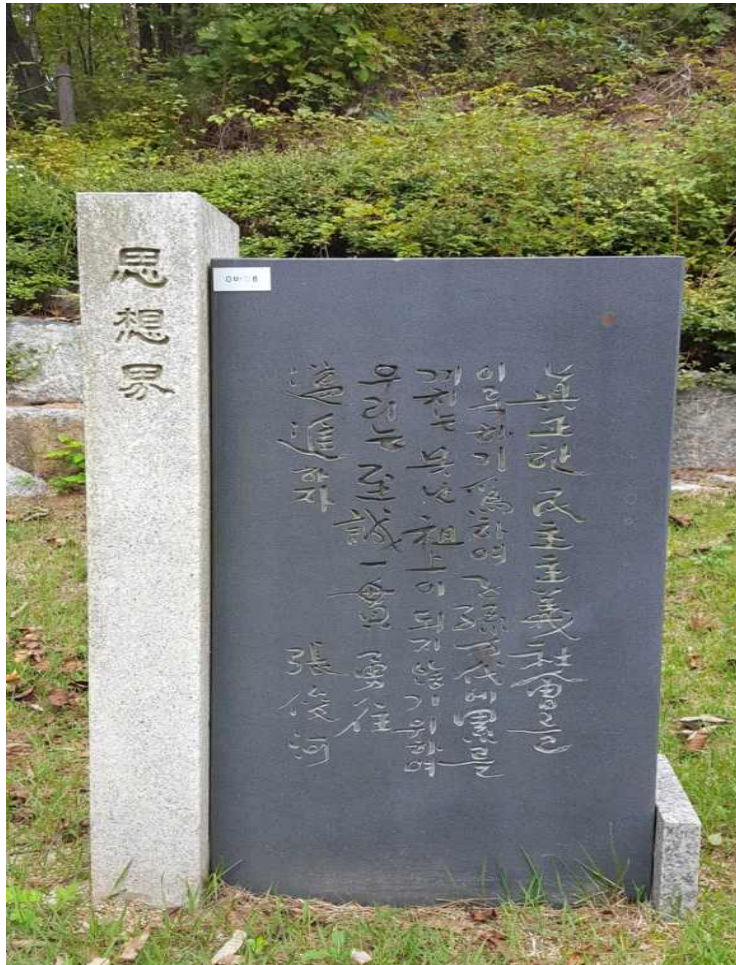
그러나 그는 현재 권력을 쥔 이들의 불의를 용납할 만큼 녹록한 사람이 못되었다. 일본군 장교 출신의 집권자가 국정을 전횡하고, 공산독재에 맞서 싸워야 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굴욕적 한일 회담을 추진하고, 기업의 밀수를 묵인하고, 그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 챙기는 세상을 눈 뜨고 보아줄 수 없는 광복군 장교였다. 결국 그는 진정한 우익이었기에 이 땅의 주류 우익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일본군 장교 출신 대통령과 광복군 장교 장준하 사이가 좋을 리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장준하는 거침없는 필봉과 사심 없는 마음으로 박정희의 철권에 맞섰다.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를 깨기 위해 게릴라전까지 불사하겠다."고 했으며, 항상 몽둥이를 차에 두고 다니다가 미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가 미행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1975년 8월 17일. 폭염이 가시지 않던 그날, 그는 등산을 나섰고 끝내 상봉동 집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그 죽음의 내막은 여전히 귀신도 모른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자손만대에 누를 끼치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지성일관 용왕매진하자,”

그의 묘비에 있는 글이고, 살아 있을 때 그가 남긴 말이다.



파주시 탄현면 장준하 선생 묘지에 서 있는 비석